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성경말씀: 민20:1-13

지난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 보상에 주신다.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 6번째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이 땅의 삶, 영원한 보상 결정 목사로서 해야 할 일: 균형 있게 진실을 보여 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진실을 알려 주고 가야 한다. 어느 한 구절 떼다가 말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알려 주는 하나님, 민20:1-13

### 배경 설명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광야 생활 40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탐지 12명을 보냄(민13), 40일 동안 돌아보고 악한 보고,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14:34) 그 뒤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옴(1), 1세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난다. 1. 미리암이 죽는다. 2. 아론이 죽는다(20:22).

이제 모세만 남았다. 자 모세는 죽어야 할 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 모세의 운명이 결정된다. 교회 지도자,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기사

### 교회 회중과 목사의 관계(1-6)

1. 문제가 발생하였다(2), 2. 고질적인 해결 방법(2): 지도자 대적, 3. 백성의 불평(3-4)
  - a. 다베라 사건(민11:1-3), b. 기브룻하다와 사건(11:4-35): 고기와 야채가 풍성하던 이집트가 그립다(4-5). 교회 생활이 단순하고 재미가 없다. 모세의 고민: 죽여 주십시오(15). 떼추라기, 33절, 매우 큰 재앙, c. 스파이 사건(14장), 10명이 재앙으로 죽음(14:37), d. 고라 사건(16장), 약 15000명(49)
4. 실제 문제: 여전히 이집트가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5). a. 죄 가운데 지내던 시절, b. 이전에 뜨겁게 행하던 비성경적인 관습들
5.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앞드려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함 성경을 보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함;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이 앞드려 기도함(6)
6.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 이것이 공통적인 패턴, 어머니처럼 해야 한다. 늘 반복된다. 사람이 나간다. 대개 목사와 사모 불평, 사람이 늘 때는 아무 이야기 안 함 사도 바울의 충고(히13:17), 이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좋은 성도의 자세

### 하나님이 해결하신다(7-9)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다. 병, 재정, 인생의 모든 문제 성도들과 목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창조자 그 해결책은 명확하였다(8).

1. 막대기를 취하라(홍해를 가르던 막대기), 2. 집회 회중을 모으라, 3. 반석에게 말하라, 4. 반석이 물을 주면 백성에게 주라.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명령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 모세와 아론의 죄(10-11)

- 모세는 화가 났다. 1. 그래서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쳤다(11). 2. 그리고는 백성을 향해 '반역자들아'(10), 3.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함(10)

### 결과(11-12)

1.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솟아올랐다(11).
  2. 모세와 아론에게 노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의 심판을 내림(12)
-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하나님의 공의

모세의 항변: "이집트 탈출 이후 지난 39년 동안 이 백성의 행태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이었

불평입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저를 자극하였습니다”(시106:32-33),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를 일찍 죽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저와 함께하던 내 누나 미리암이 죽어서 이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니다”, “이 정도로 불명하면 이전처럼 아예 그들을 주님이 멸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12), ‘백성도 문제지만 너희는 더 문제다.’ 1.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12), 2.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빼앗아갔다.

1. 불신의 행위, 성도들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대로 믿는가? 창조, 구속, 재림과 부활 특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2.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였다.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는 의미: 이 모든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 내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가로챘다.

그 결과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못 들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거룩히 구별되심(13) 즉 모든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됨,

3.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대통령, 목사, 교황)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도, 사람들 보기에 뛰어나도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4. 베드로의 권면(벘전3:13-15),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진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이루어진다.

5.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벘전 1:15-16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자극이 있고 다운되어도

####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불평, 지도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옴(11)

내가 이들에게 물은 준 것은 이들의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 은혜로 내가 내 반석에서 물을 준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고전10:4)

1. 구원도 은혜로, 신음할 때에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 탈출, 전적으로 은혜로

2. 그 이후 광야 생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과정,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늘 불평, 불만, 이집트 생각

3. 그럼에도 물을 주신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4. 그런데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들의 무례함으로 지도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놓쳤다.

모세의 일생을 보자: 120년, 40, 40, 40, 후반부 40년 말 그대로 봉사하며 살았다.

신3:23-29,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 결론

교회를 하고 있다. 올바른 교회를 하려는 열망이 있다.

그런데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집트가 아른거린다. 세상과 죄, 이전의 행실들

그러면 지도자들과 회중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횡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생각해야 한다.

개개인의 삶

1. 하나님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못 참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죄와 불평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2. 구원받은 것, 지금 살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면 안 된다.

3. 이런 원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